

근대화 시기 한국에서 <로봇 태권 V>의

‘로봇’이 가지는 의미*

-거대 로봇 태권 V와 인조인간 매리를 중심으로-

윤지혜**

<차례>

1. 들어가며
2. 발전주의 담론의 확산과 선진국에 대한 선망으로서의 ‘로봇’
3. 힘에 대한 추구로서의 발전주의 긍정 - 신한 거대 로봇, 태권 V
4. 기계에 대한 인간성의 우월함 강조 - 안전한 인조인간, 매리
5. 결론

<국문초록>

<로봇 태권 V>는 한국만화영화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탑승하여 조종하는 거대 로봇이 주동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으로, 로봇이라는 소재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특히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담론과의 관계성을 주목하여 살펴볼 때, 이 작품에 드러나는 로봇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한 기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후 한국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발전담론은 한국을 선진국에 진입시켜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한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을 선진국의 모델로 인식하여 자동화 기계에 둘러싸인 문명 생활을 선진 국가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 가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첨단 산업으로서 로봇의 의미가 발견된다. <로봇 태권 V>는 거대로봇 태권 V와 인조인간 매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반열에서 세계를 수호하는 한국의 미래를 상상하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희구(希求)하는 당대 한국인의 정서를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드시 선행하게 작동하는 거대 로봇 태권 V의 활약과 기계로 만들어졌음에도 인간성을 긍정하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인조인간 매리의 낭만적인 서사는 당대의 발전주의 담론이 가지는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전후 발전주의 담론이 대중문화의 형성과 관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침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근대화, 로봇 태권 V, 로봇, 발전주의, 선진국 담론

1. 들어가며

공상과학은 또 다른 세계, 혹은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만화영화의 소재로서 각광받는다. 그림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상상력에서 비롯한 새로운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만화영화의 특징이 공상과학 소재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관객의 눈앞에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편만화영화사에서 공상과학 소재는 과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소련과 미국이 달에 먼저 착륙하기 위한 우주 전쟁을 벌이는 등의 세계적 사건들이 국내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으며,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져 공상과학 소재의 장편만화영화가 각광받을 수 있게끔 했다.¹⁾ 1968년 세기상사에서 박영일 감독이 <황금철인>을 발표하여 우주공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이후, 1970년대는 극장에 걸리는 대부분의 장편만화영화가 공상과학 소재를 취하는 것일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 장편만화영화에서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 ‘공상과학’은 이성적, 합리적 사고방식을 통해 학술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지식에 반드시 기반을 두지는 않으며, 앞으로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상과학이라는 것은 기술과 결합된 과학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 역시 포함하는, ‘과학적 상상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고장원, 『SF의 법칙』, 살림, 2008, 35면 참조.

* 본 연구는 <지역어문학과 생활의 풍경> 한국문학언어학회 제 5차 학술대회, 2015년

8월 21일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301호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하였음.

**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이러한 흐름에 가장 강력하게 힘을 실어 준 것을 하나 꼽자면 1976년 유프로덕션에서 제작하고 김청기가 감독한 <로봇 태권 V>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서울동화와 유프로덕션의 합작으로, 김청기 감독의 연출과 유현목, 조항리 감독의 감수, 그리고 유현목 감독이 발탁한 신예였던 지상학이 시나리오를 맡아 제작하게 되었다.²⁾ 이 작품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의 한국을 상상하여 한국 만화영화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거대 로봇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으로,³⁾ 서울 관객만 13만 3600명을 유치하는 유래 없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⁴⁾ 뒤이어 <로봇 태권 V 2편 우주작전>(1976), <로봇 태권 V 3편 수중특공대>(1977) 등 후속편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한국 만화영화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며, 이후 한국 공상과학 소재 장편만화영화사에 방점을 찍은 작품이 되었다.⁵⁾ <로봇 태권 V>의 인기는 이 작품이 만화책으로 출판되고 그

- 2) 서울동화는 세기상사로부터 감독으로 고용된 바 있었던 박영일 감독이 독립하면서 차린 회사로, 주로 상업 광고용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업체였다. 박영일 감독이 지병인 혈압 문제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서울동화에 소속되어 있었던 김청기 감독이 회사를 인수하고 유현목 감독의 영화 제작사인 유프로덕션과 합작하게 되었다. 김청기 감독은 박영일 감독이 <황금철인>(1968)을 제작할 당시 동화작업 스태프로 참여했는데, 서울동화에서도 만화영화의 그림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동화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비록 결과물이 발표되지는 못했지만 장편 만화영화 제작사인 키프로덕션을 설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장편 만화영화 제작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페니웨이, 『한국슈퍼로봇열전』, 한스미디어, 2012, 38면 참조.
- 3) 거대 로봇이 국내 장편만화영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박영일 감독의 <황금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황금철인>에서 거대 로봇은 주인공인 황금철인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나타날 따름으로, 작품에서 그 존재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대 로봇이 작품의 핵심에 자리하며 그 시리즈를 이끌어 간 것으로는 <로봇 태권 V>가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4) 당대 영화계에서 세 번째로 흥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신동현 감독의 장편만화영화 <홍길동>(1967)이 유치한 서울 관객이 10만여 명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영화계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기록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조한 흥행 고난의 연속, 두드러진 수확 없었던 영화계 1년』, 『경향신문』, 1976.12.17 참조.
- 5) <로봇 태권 V>는 1976년 7월 24일 대한극장, 세기극장에서 개봉하였으며, <로봇 태권 V 우주작전>(1976)은 그로부터 5개월 만인 1976년 12월 13일 중앙극장에서

주제가 레코드로 제작되는 등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될 수 있게 하였으며, 1970년대 한국인의 기억에 깊게 내재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태권 V'에 대한 향수를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로봇 태권 V>가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왜 한국사회는 <로봇 태권 V>를 추억하면서 반복적으로 회고하는가? 이제까지의 <로봇 태권 V>에 대한 연구는 '태권도'라는 소재를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한국 역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장편만화영화라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과 당대 사회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그 중에서도 박남기는 태권도가 군사적이고 산업자본주의에 알맞는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육 방식으로 <로봇 태권 V>를 비롯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장편만화영화들은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했으며,⁶⁾ 이지은은 당대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 즉 적극적으로 남성을 보조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로봇 태권 V>의 여성 인물에게 반영되어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음을 설명하고자 한다.⁷⁾ 이들 연구는 <로봇 태권 V>가 당대 사회와 가지는 관련성을 설명하여 많은 관객으로부터 주목을 끌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다소

개봉했다. <로봇 태권 V 수중특공대>는 약 7개월의 제작기간 끝에, 1977년 7월 20일 시민회관 별관에서 개봉했다. 이후에도 <로봇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 <우주전함 거북선>과 같은 작품에서 태권V가 꾸준히 등장하거나 태권V의 인물이나 서사를 연상시키는 모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수의 장편만화영화에서 <로봇 태권 V>에 대한 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1984년, 1990년에 각각 태권 V와 관련한 실사 영화가 만들어지고 <로봇 태권 V> 그 이후를 그린 웹툰 <브이>가 연재되는 등, 현재까지도 <로봇 태권 V>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박남기, 『1970년대 후반 태권도 소재 한국애니메이션의 신체재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7) 이지은,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V>의 여성관 연구: 영화와 메리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제15호, 영상예술학회, 2009.

한정적이라는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로봇 태권 V>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끌었으며 작품 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능했던 '태권 V'에 대한, 한국 만화영화사에서 처음으로 주동인물로 등장한 '거대 로봇'에 대한 충분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봇, 즉 robot이라는 용어는 1921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펙(Karel Capek)의 희곡 작품 『로섬의 유니버설 로봇(Rosum's Universal Robots)』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계로 이루어진 부품들의 조립으로 보통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자동화된 기계장치를 일컫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공상과학 소재에서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자동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들은 인간의 형태와 닮아있지만 과학적 상상력이 빚어낸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며, 공상과학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종종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 국가의 위치를 선망하며 근대화를 가속하던 197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선진 과학 기술의 결과물로 인식되었던 로봇이 가지는 의미는 특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봇 태권 V>에서 드러나는 로봇의 특성과 그것에 내재하는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1970년대 한국의 근대화 맥락에서 도출된 주요 담론들과 '로봇'이라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로봇 태권 V>의 로봇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작품에서 상상하는 과학 기술이 발전한 사회에서 로봇이라는 기계 몸이 가지는 함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당대 사회와 관련되며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논의의 초점은 <로봇 태권 V>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서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동화 기계, '태권 V'와 '매리'에게 맞춰질 것이다. <로봇 태권 V>에서 첨단기계의 존재로서 현대 문명의 정점으로 드러나는 태권 V, 그리고 매리의 역할과 의미를 탐색하고 그것을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추구했던 '근대화'라는 맥락과 견주어 보는 것은, 한국장편만화영화사에서 <로봇

태권 V>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사적 측면에서의 의의 역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발전주의 담론의 확산과 선진국에 대한 선망으로서의 '로봇'

<로봇 태권 V>가 한국의 장편만화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탄생한 많은 공상과학 소재의 장편만화영화가 <로봇 태권 V>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계승하고 있으며, 1970년대를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태권 V'는 강력한 영웅으로써 끊임없이 회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봇 태권 V>는 그동안 반동인물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로봇이라는 대상을 주동인물의 위치에 놓아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당대 한국에서 '로봇'이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작품이 관객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게 된 것은 어떠한 맥락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후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후의 한국을 사로잡은 패러다임은 '근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과 한국전쟁, 민주주의 혁명 등의 강렬한 체험은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혼란 역시 부여했다. 계속된 사건은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생활을 추스를 여지를 주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는 부담을 가져왔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다분히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1958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감소하며 생활에 커다란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더 이상 의존할 것이 없다는 위기의식은 한국 내에서 자국의 힘으로 발전을 촉구하는 발전주의 담론이 힘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⁸⁾

발전주의 담론은 19세기 서구와 비서구의 만남에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냈던 문명 담론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한계를 드러내자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부상된 바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문명국'에 속하던 유럽의 국가들의 권위가 세계대전의 상흔으로 인해 주춤해지고 미국이 패권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 질서가 재편되는 맥락에서 가능했다. 발전주의 담론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발휘하며 국가들로 하여금 '발전된(developed)' 국가와 '발전중(developing)'인 국가라는 새로운 이분법을 만들어 내며,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등 경제적 지표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발전중'인 국가로 상정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높은 국민소득을 획득하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꿈꾸는 '선진국 담론'을 지지하게 되었다.⁹⁾

그렇다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어떠한 방향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는가. 당대 발전주의 담론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미국을 가리킨다. 해방 이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미국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긴밀히 접하게 하면서, 선진국에 대한 '동경'을 심어준 것 역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체제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미국 가정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고도로 발달된 현대문명을 획득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1959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였다. 모스크바 박람회에서 미국은 당대의 미국 국민들조차 아직

8) 정일준,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 1953-1968」,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88면 참조.

9) 김종태, 「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한국사회학』 제47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2013, 72~74면 참조.

누리고 있지 못한 완전 자동화된 최첨단의 가정생활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소콜니스키 공원에 자리한 미국관은 “단추만 누르면 자동적(自動的)으로 모든 것이 되는 모형(模型)의 부엌 전시품(展示品)”을 선보이고 “승용차(乘用車)가 미국(美國)에서는 아주 손쉽게 얻어지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¹⁰⁾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관객들의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인은 도미 연수생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자동화, 기계화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미국 가정생활이 ‘근대적’, ‘합리’, ‘편리’ 또는 ‘간소화’, ‘문화생활’, 그리고 ‘평등’이란 개념들로 설명”¹¹⁾되는 경험을 하며, 자동화 된 현대문명의 삶을 누리는 선진 국가, 미국을 동경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우(Walt Whitman Rostow)의 근대화론은 미국의 생활이 한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하면서, 한국의 근대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도대중소비의 경제발전단계에 진입하여 전후(1946-56년)에는 완숙기에 접어들어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련은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함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우월함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을 주장했는데,¹²⁾ 이것은 저개발 국가도 선진 국가처럼 발전할 수 있으며, 서구 선진 국가들이 수백 년을 통해 달성한 경제적인 변영을 저개발 국가들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¹³⁾ 한국도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경제개발을 통해 빠르게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파한 것이다.

10) 『미국박람회대성황(美國博覽會大盛況)』, 『동아일보』, 1959.07.26.

11) 허은, 「'전후'(1954-1965) 한국사회의 현대성 인식과 생활양식의 재구」, 『한국사학보』 제54호, 고려사학회, 2014, 300면.

12) 박태균, 「1950년대 말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변화와 로스토우의 근대화론」, 『한국사론』 제37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7, 281~285면 참조.

13)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인물과사상사, 2004, 20~22면 참조.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한국에는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각종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개발의 꿈이 허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다. 1960년대부터 월평균 경제성장률은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며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¹⁴⁾ 빈곤 속에서도 가정 경제가 향상되었음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은 동경하던 미국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 삼신기(三神器)에의 욕망”¹⁵⁾이었다.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세탁기를 가리키는 이 세 가지 상품은 현대문명을 구가하는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한국인은 ‘현대 삼신기’를 통해 자동화된 가정생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근대화된 생활방식을 구가하려 했던 것이다. 즉 자동화된 첨단 기기는 현대 문명의 상징으로, 한국인에게 선진 국민으로서의 감각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1970년대에는 이러한 감각들이 체득되고 있었던 시기로, 선진 국가로서 한국의 모습이 실감나는 현실이 되려는 것으로 보이던 때였다. 정부고속도로 개통, 수출 10억 달러 달성 등의 사건들은 한국이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급속히 진입하는 듯한 감각에 신뢰감을 더해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대 자동화 기기의 가장 첨단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로봇은 선진 국가로서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를 전후하여 서독에

14) 이것은 단순히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라고 하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전쟁의 참전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당시 전체 재화 및 용역 수입의 평균 12.5%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대 한국인에게 수직상승하는 월평균 경제성장률과 소비문화의 변화 등은 변화하는 한국을 체감하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이것은 한국이 ‘선진 국가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화의 연구』 제32권, 한국문화연구학회, 2007, 343~344면 참조.

15) 이종수, 『대량소비시대의 전망: 현대 삼신기(三神器)에의 욕망』, 『세대』 제5권 통권 48호, 세대사, 1967.7, 132면.

서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영국에서는 단조로운 공장 일을 대신하는 노동자로 판매가 되며, 로마에서는 로봇 교통경찰이 만들어져 교통을 통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여러 로봇들이 발명되는데는 소식은 또 다른 자동화의 세대의 탄생을 기대하게 했다. 심지어 1970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에서 “축제광장(祝祭廣場)에 설치된 거대한 로봇로부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이 흘러나”¹⁶⁾오는 압도적인 광경은 미래의 선진 한국을 꿈꾸는 것에 있어서 최첨단 자동 기기 ‘로봇’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게 했을 것이다.

1970년대 근대화의 맥락 속에서 로봇이 가지는 이러한 상징성을 염두에 둘 때, 장편만화영화 <로봇 태권 V>가 적극적으로 로봇을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당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을 움직여보이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내는 만화영화의 특성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도래 할 것으로 희망하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에 작용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하여 다른 국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한국의 모습을 관객들이 목격하게 하고 그에 열광하게 하는 것이다. 거대로봇, 인조인간 등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활약하는 장면을 통해 관객은 선진 국가에 대한 희망과 꿈을 대리충족하고, 현재의 근대화 방향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로봇’이라는 대상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상상 그 자체였으며, 희망과 만족을 주는 발전주의 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봇 태권 V>의 로봇들의 활약은 강대한 힘을 가진 영웅의 활극, 그 이상의 의미를 당대 관객들에게 부여한다.

3. 힘에 대한 추구로서의 발전주의 긍정 - 선한 거대 로봇,

16) 『인류의 진보와 조화... 엑스포70 개막』, 『동아일보』, 1970.03.14.

태권 V

1970년대에서 발전주의 담론이 추구하는 '선진국'이라는 목표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당대 한국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이나 정신문화,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은 발전주의 담론에 의거하여 선진국을 획득하기 위한 '민족 개조'를 주장하면서, 민족의 과거, 역사 혹은 전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함을 역설하여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당대의 한국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며 당대 한국인의 의식에 일대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발전주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을 민족의 최우선 과업으로 내세우던 박정희 정권에게 가난과 빈곤에 찌든 한국의 과거는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부정적인 역사였다. 그는 “자랑스러운 민족문화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만 있었을 뿐, “민족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만이 민족 사회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¹⁷⁾이라고 믿으며 그러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민족의 역사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함을 주장한다. 그 혁명은 근대화, 공업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통해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일어나야만 했다. 힘에 대한 강력한 갈망은 경제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뿐만 아니라 ‘민족중흥’을 목표로 수행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¹⁸⁾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에 국난 극복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순신, 세종, 화랑 관창 등 역사 속의 영웅들을

17)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47면 참조

18) 이때 수행된 국가사업 가운데에 특기할 만한 것이 1972년부터 강조된 ‘국적있는 교육’,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다. 국가교육강화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국가 교과서가 국정화되어 각 학교로 보급되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7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2, 270~271면 참조)

새로이 발굴하여 그들의 업적을 강조하는 등 민족문화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¹⁹⁾ 이때 개발된 전통문화들은 멸사봉공의 정신, 민족의식과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국민계몽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²⁰⁾

이때 민족문화의 창조와 개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태권도’의 국기화였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는 민족의 전통적인 무도로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1955년 처음으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형식과 규칙을 갖추며 정립되었다.²¹⁾ 이후 태권도는 무도라기보다 하나의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여,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으로 수련하는 방식이자 국제 이벤트에서 국가를 선전하는 방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²²⁾ 즉, 태권도는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드는 도구이자 세계인 속에 한국인을 특정하는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기능하도록

19) 최연식, 앞의 글, 53-60면 참조. 박정희 정권의 전통문화 창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임학순,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 인식 연구-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제21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2를 참조할 것.

20) 박정희 정권의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한 창조된 민족정신의 활용 방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연식, 앞의 글, 61~66면 참조.

21) 태권도는 1971년 대통령 박정희로부터 ‘국가’라는 휘호를 하사받았으며, 1973년 5월에는 제 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974년 10월에는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는 품새나 동작의 규준을 정비하고, 1973년 5월 28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서울 창립총회에서 규약 및 경기규칙이 제정되어 국제 스포츠로서의 기틀을 다졌다. 이때 결정된 내용은 태권도의 국제 스포츠로서의 규격으로, “경기장은 8m X 8m 평면 마루바닥, 경기시간은 2분 3회전 중간휴식 30초, 득점은 차등점수제로서 몸통(명치/복부/양 옆구리) 부위 가격시 1점, 발공격만을 허용한 얼굴부위는 강한타격에 의한 2점과 가벼운 공격시 1점 채택, 남자 8체급, 심판구성은 6단 이상 고단자로 배심 2명과 주심 1명, 부심 4명 등 7심제, 금지행위로서 12항목의 경고 사항과 4항목의 감점 사항” 등이 확정되었다. 한경희·신현규, 『대한태수도협회 1962년 제정 최초 태권도 경기규칙을 찾아서』, 『스포츠인류학연구』 제4권 1호, 한국스포츠인류학회, 2009, 124면 참조.

22) 스포츠와 관련된 제도화 및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이지만, 그것을 ‘국민의 생활’과 연결지며 그 기능을 강조한 것은 박정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포츠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모든 국민들이 체육을 생활화하는 새로운 기풍을 진작, 체육중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박대통령 “체육의 생활화 진작”』, 『동아일보』, 1970.10.06.

기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태권도를 하는 거대로봇'의 서사를 보여주는 <로봇 태권 V>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주의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이 상호 융합되며 증폭되어 '선진국'이라는 가치를 맹목적으로 좇게 된 1970년대 한국인의 정신 풍경과, '로봇'이라는 선진 자동화 기기와 '태권도'라는 창조된 전통적 가치가 만나 이루어 낸 영웅의 모습은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대 한국인의 정신 풍경을 대변하는 듯한 '태권 V'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봇 태권 V>가 한국만화영화사에서 이전의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로봇 태권 V>가 한국만화영화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거대로봇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당대의 상황에서 그것은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었다. <로봇 태권 V>보다 앞선 시기 박영일 감독이 <황금철인>(1968)에서 '청동로봇'이라는 거대로봇을 등장시킨 바 있었으며, TV에서 수입 방영된 다수의 일본 만화영화에서도 거대로봇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봇 태권 V>의 거대로봇 '태권 V'는 태권소년 훈이 직접 탑승하여 조종함으로써 악당들을 물리치는 매개체가 되므로, 주동인물의 기능을 하며 전면에 부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거대로봇과는 차이가 있었다.²³⁾ 즉 '선한 거대로봇'을 최초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23) 박영일 감독의 공상과학 소재 장편만화영화 <황금철인>(1968)의 '청동로봇'은 화염을 뿜고 자가수복 기능도 있는 개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황금철인>의 반동인물인 사탄이 주동인물 황금철인을 물리치지 위해 제작한 로봇으로 그 활약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태권 V'는 평화를 수호하는 주동인물의 위치에서 <로봇 태권 V> 서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대로봇이 주동인물로 드러나는 첫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봇 태권 V>에서 등장하는 모든 거대로봇이 선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작중에서 로봇을 제작할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두 인물, 김박사와 카프박사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려 한다. 김박사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반면, 카프박사는 자신의 못생긴 외모를 비웃으며 자신의 과학적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로봇 제국을 세우고자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한다. 카프박사가 만든 거대로봇은 건물을 부수고 사람을 해친다. 과학적 산물이 반드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과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과학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상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로봇 태권 V>에서는 과학 기술이 생산해 낸 강력한 힘, 로봇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한 태권 V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과학의 부작용에 의한 불안을 미봉(彌縫)하고자 한다. 김박사와 윤박사가 태권 V를 제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기술력이 집중된 태권 V의 우수함을 드러내거나, 로우 앵글의 카메라 시선을 통해 태권 V의 거대한 신체를 강조하는 시도를 통해 태권 V가 과학 기술의 정점에 있으며, 그로 인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반드시 선과 직결되어, '태권 V=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태권 V를 제작한 중심인물 김박사의 발언이다. 그는 작중 초반에 로봇 제작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피력함으로써 태권 V의 정체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김박사 카프박사, 우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게 아니야.

카프박사 그럼?

김박사 만약의 경우, 어떤 침략자가 있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 로봇을 만든다는 걸 자넨 몰라서 묻나?²⁴⁾

김박사가 만든 로봇, 태권 V는 “어떤 침략자가 있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그 제작 목적에는 안보 이외의 것은 없다. <로봇 태권 V>에서는 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김박사의 주변에 흰 비둘기가 맴도는 장면을 배치하여, 그 목적이 김박사의 심성에서 우러나온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한다. 흰 비둘기와 김박사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흰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김박사에게 전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박사가 가지게 된 ‘평화’에 대한 이미지는 그가 만들어 낸 거대 로봇 태권 V에게도 전이된다. 즉 태권 V는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로봇으로서, 그의 강력한 힘이 선을 위해 수행될 것이라는 것은 절대불변의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림 1> 흰 비둘기와 김박사

24) <로봇 태권 V>(1976), 10분 54초~11분 7초.

이외에도, 카프박사가 매리를 김박사의 집에 잠입시켜 태권 V의 설계를 훔쳐내도록 도모하는 장면 역시 태권 V의 강력한 힘은 선의 측면에서만 기능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태권 V의 설계도는 또 다른 태권 V의 존재가 가능하며, 이것이 도난당할 경우 카프박사에 의해 인류를 위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관객에게 안겨줄 수 있다. 실제로 작중에서는 김박사가 설계도를 지키려다 카프박사의 부하에게 총을 맞게 되고 태권 V 설계도는 빼앗기게 됨으로써 그 불안은 실체를 드러내기 직전에 이르지만, 곧이어 빼앗긴 설계도는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태권 V의 유일무이함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객은 태권 V는 반드시 선의 입장에 존재하게 될 것임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태권 V의 조종자 훈과 태권 V가 맺는 관계는 태권 V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 선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태권 V는 조종자인 훈과 동일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의 산물이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종자, 즉 훈이 필요하다. 한편 훈에게 태권 V라는 거대 로봇은 인간의 신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그를 영웅으로써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훈과 태권 V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맺는 긴밀한 관계는 나아가 이들을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게 한다. 태권 V는 카프 박사의 로봇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종종 훈의 모습과 겹쳐져 디졸브(dissolve)된다. 시각적으로 훈과 태권 V의 모습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겹쳐지면서, 태권 V의 활약은 훈의 활약과 동일한 맥락으로 의미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태권 V는 훈의 거대화 된 대리 신체로서 표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태권브이와 훈의 디졸브 장면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훈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태권도’라는 점이다. 훈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우승자로, 아버지인 김박사의 지도 아래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훈련해 온 인물이다. 이것은 “우리 태권도를 그대로 재현”²⁵⁾하는 거대 로봇 태권 V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훈을 태권 V의 조종사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난다.²⁶⁾ 즉 태권도는 훈과 태권 V를 연결 짓는 매개체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훈과 태권 V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된다. 그런데 앞서 서술했듯이, 태권도는 “사회적 응집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수단”²⁷⁾으로서 창조된 스포츠

25) <로봇 태권 V>(1976), 33분 38초~33분 40초.

26) 훈이 처음으로 태권 V의 조종에 성공한 후, 그의 눈이 클로즈 업 되는 가운데 훈의 과거가 회상된다. 어린 아이인 훈이 아버지 김 박사의 지도 아래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모습이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반복되는데, 이 회상 이후 훈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야 할 것 같다는 눈물 짓는다. 훈이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했다는 것과, 그것이 훈의 아버지 김박사의 지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처음으로 태권 V 조종에 성공한 이후 이어진다는 것은 태권 V의 조종과 태권도의 수련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 태권 V>(1976), 33분 42초~34분 33초.

27) 배재윤, 『기획된 문화, 만들어진 스포츠』, 『한국사회학회 2013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3, 305면.

이자 국민계몽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전주의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문화였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스포츠로서 보급된 태권도의 정치·사회적 의미는 푸코의 논의를 참조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²⁸⁾하는 방식을 ‘규율(discipline)’이라고 명명하였다. 규율은 효용성의 증대라는 목적 아래 신체가 속하기를 요구하는 어떤 권력의 매커니즘을 만들어내며, 이 매커니즘은 군대나 공장, 병원, 학교 등 일상의 미세한 부분까지 침잠한다. 마치 그물망과 같이 사회의 곳곳에 침투하여, 자동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²⁹⁾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신체와 행동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까지 포함하게 된다.³⁰⁾ 스포츠는 이러한 규율이 작동하는 지점으로, 규칙 혹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어진 일정한 질서 아래 인간을 배치하고 행동하게 한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으며,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 온 훈은 푸코의 관점에서 스포츠라는 규율 아래 정돈되고 다듬어진 인물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훈은 기존의 질서를 해치는 방향이 아닌, 자신이 학습한 규율과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인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태권 V(훈)과 카프박사의 대립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진다. 태권 V와 훈이 기존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카프는 그것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전복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강력한 악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세뇌되고, 건물은 무너지며, 잘 정돈된 도로는 부서지고, 세상은 두려움에 떠난다. 훈은 카프박사를 제압함으로써 본래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질서를 회복하

28)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2, 216면.

29) 규율의 확장에 관해서는 미셸 푸코, 위의 책, 323~328면 참조.

30) 미셸 푸코, 위의 책, 218면 참조.

는 것이다. 이처럼 극명한 질서와 무질서의 구도는 선악의 구도와 직결되며, 이 구도가 의심의 여지없이 항상 강력한 태권 V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선-질서의 우위가 결정된다.

강력한 자동 기계가 선의 위치에서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1970년대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근대화의 진행 방식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빠르게 그 구조가 변동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과 경제구조가 급속히 재편되었고,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급격한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불안과 불균형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과 질서의 구축을 시도한 바 있었다. 가족계획 사업을 통한 출산조절, 군사문화의 일상화, 퇴폐풍조 단속, 스포츠의 권장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작동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¹⁾ 규율에 순응하는 신체로서 혼이 존재하며 그것이 강력한 태권 V의 힘이 발휘되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작품의 이해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로봇 태권 V>에서 나타나는 혼과 태권 V에 대한 표상은 통제를 통해 안정된 질서를 요구하던 당대 한국의 근대화 진행 방식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로봇 태권 V>에서 첨단 과학 기술이 탄생시킨 거대 로봇, 태권 V가 보여주는 강력함에 당대의 관객들이 매료된 것은 빠른 근대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농촌의 급속한 쇠퇴나 환경오염, 인간 소외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던 당대의 현실적 모습과 달리, 선망했던 현대 문명에 대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선'

31) 1970년대 한국의 사회문화적 지형에 대해서는 주창윤, 「1975년 전후 한국 당대문화의 지형과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제51권 4호, 한국언론학회, 2007;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역사』 제 67권, 한국사회사학회, 2005 참조.

의 모습이 규율 속에서 탄생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기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원했던 당대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황이 로봇 태권 V를 탄생시킨 것이다.

4. 기계에 대한 인간성의 우월함 강조 - 안전한 인조인간, 매리

태권 V가 강력한 거대 로봇이 보여주는 근대화의 이미지를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킨다면, 매리는 <로봇 태권 V>의 또 다른 히로인으로써 작품의 서사를 복합적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인물로서 기능한다. 매리는 사고할 수 있으며 인간과 매우 흡사한 외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권 V와 또 다른, 첨단의 자동 기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김박사의 과학 기술의 정수가 태권 V를 통해 구현되었다면, 매리는 카프박사가 발휘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정수로서 그가 딸로 여길 정도로 아끼는 인조인간 로봇이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매리는 처음에는 인간인 혼과 영화, 김박사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위장하여 스파이로서 잠입할 수 있었다. 매리와 태권 V는 똑같이 기계로 이루어진 몸을 하고 있는 로봇이지만, 태권 V와 달리 그녀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으며, 질투와 같은 감정 비슷한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의 인간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매리의 존재로 인해 그녀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인간을 본 따 만든, 외양이 인간과 흡사한 인조인간은 1921년 카렐 차페크(Karel Capek)의 희곡 『로섬의 만능로봇(Rosum's Universal Robots)』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다양한 장르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그려지는데, 이것은 진보한 과학 기술이 생산할 수 있는 '인조인간'이라는 대상을 통해, 이 발전이 "인류에게 즐거

움과 생산성 및 편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더라도 통제성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불안³²⁾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공된 존재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작품들에서 그려내는 인조인간의 모습과 <로봇 태권 V>의 인조인간 매리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매리는 레이저 빔이 나가는 펜싱 칼을 사용하며 훈과 영희에게 대항하려 하지만, 인간인 훈을 물리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태권도를 수련해 온 훈이 매리를 손쉽게 제압한다는 점에서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기계'라는 불안이나 공포를 조장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태권 V의 공격에 의해 기지가 무너져가자 카프 박사가 매리와 도망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고장이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던 매리는 “저 같은 로봇쯤 다시 만들”라며 거절한다.³³⁾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내뱉는 이러한 매리의 말은 스스로가 소모성을 가진 물건에 불과하다는 비관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점에서 매리의 존재, <로봇 태권 V>에서 인조인간의 존재는 인간에 비해 무엇 하나 나올 것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매리는 카프박사의 스파이로 잠입하여 훈과 영희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 비해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가시화된다. 매리의 인간에 대한 열등감은 그녀의 입을 통해 인간에게는 있지만 인조인간에게는 없는 것, “인간의 사랑³⁴⁾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유무는 매리에게 있어서 인간에 비해 인조인간이 가지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

32) 김연순, 『기계인간에서 사이버휴먼으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76면.

33) **말콤(카프)** 매리아,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매리 틀렸어요. 저는 고장 난 로봇이에요. 저 같은 로봇쯤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로봇 태권 V>(1976), 1시간 6분 6초~1시간 6분 14초.

34) <로봇 태권 V>(1976), 52분 42초.

매리 바보 같은 짓이에요. 기계인 우리가 무엇을 어떡하겠단 거예요? 세계를 피로 몰들여 빼앗은 다음에 대체 어찌겠다는 거예요? 네, 아빠!

말콤 닥쳐라!

매리 이 세상 모든 걸 준다 해도 우리는 기계예요. 인간의 모조품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말콤 저, 저런!

매리 전 예쁜 소녀가 되고 싶단구요.³⁵⁾

매리가 인간의 모조품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이 세상 모든 걸 준다 해도 우리는 기계”일 뿐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사랑이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인간과 로봇의 차이를 결정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쁜 소녀”가 될 수 없는 자신을 눈물 지으며 한탄하는데, 이것은 인간인 영희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다. 매리가 로봇임이 드러나자 훈은 매리를 위로하고 이를 목격한 영희는 매리에게 “로봇트라니, 정말 놀랐”³⁶⁾다며 훈과 매리가 단 둘이 있는 것에 대한 질투가 서린, 다소 비꼬는 듯한 어조를 보인다. 이에 매리는 분개하여 “난 영희 네가 괜히 밍”³⁷⁾다며 칼을 휘두르다가 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인간이 되고 싶”³⁸⁾다고 외치며 창문을 깨고 뛰쳐나간다.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은 단순히 인간과 기계의 갈등 양상이 아닌, 영희-훈-매리에 이르는 삼각관계의 구도에 인간과 기계 사이의 차이가 연애의 장애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어차피 기계인 로봇은 인간이 아니므로, 인간의 ‘사랑’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35) <로봇 태권 V>(1976), 56분 21초~56분 46초.

36) <로봇 태권 V>(1976), 26분~26분 4초.

37) <로봇 태권 V>(1976), 26분 31초~33초.

38) <로봇 태권 V>(1976), 26분 50초~26분 52초.

매리는 훈의 아버지 김 박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그와 대적해야하는 자신의 위치를 견디지 못한다. 자신의 본래 의도를 전하지 못한 매리는 이후 카프 박사가 기지로 납치해 온 윤 박사를 보호하고 탈출시키기 위해 자신이 고장 나는 등, 희생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카프 박사가 태권 V에게 공격을 감행하기를 결의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는 매리는 환상을 본다. 꽃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매리와 훈이 무지개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동물 친구들과 춤추며 즐겁게 논다. 그러다 점점 배경이 어둡게 변하고, 돌풍이 몰아치자 훈과 매리는 바람에 휩쓸려 나가떨어진다. 이 환상은 영희처럼 훈과 함께 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매리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결국 매리는 홀로 무너져 가는 카프 박사의 기지에 남아, 고장 난 몸을 힘겹게 이끌고 키보드 앞에 선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마지막으로 훈의 이름을 부르며 기지의 자폭 레버를 당기는 것이다.



<그림 3, 4, 5> 매리가 보는 환상의 변화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기계의 몸을 가진 매리는 본래적으로 인간에 비해 불우한, 비운의 존재로 그려진다고 할 수 있다. 스파이 행보를 통해 기계와 인간의, 훈과 카프 박사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존재는 인간인 훈을 위해 자신의 기계 몸이나마 희생하여 관객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³⁹⁾

39) 매리의 가련한 종말은 그녀의 존재가 무한하지 않다는 점에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더욱 극대화한다. 그러나 착한 마음을 가지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훈의 말처럼, 폭발

그와 동시에 인간과 기계, 훈과 카프 박사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대해 인간과 훈의 편에 힘을 실어준다. 매리의 이러한 성격적 변화는 <로봇 태권 V>에서 권선징악의 요소를 극대화하는 방편이면서, 생명체와 자동 기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생명체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기계성이 결코 인간의 생명성을 뛰어넘지 못하리라는 안심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덧씌워지면서 <로봇 태권 V>는 매리라는 인물을 통해 낭만적인 서사를 획득한다. 비록 고난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훈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념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매리의 행위는 카프 박사를 비롯해 붉은 제국의 로봇들의 '혁명'을 상쇄하고 안전과 평화에 대한 대중의 꿈을 대신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리의 '낭만적인 사랑'은 어떠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갑작스러우면서도 맹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매리는 스파이로서 훈과 영희와 생활하며 인간을 선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리가 선망하는 인간의 '사랑'은 이때 그녀가 접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작중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매리는 사랑을 깨달았고, 생명이 없는 자신은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즉 매리가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선망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로봇 태권 V>의 서사 안에서 개연성 없이 갑작스럽게 삽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매리를 통해 '인조인간'이라고 하는 위협적일 수 있는 대상을 가능한 안전한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했던 장치인 것이다. 즉 <로봇 태권 V>는 관객에게 발전한 미래의 과학과 기술이 가져 올 '인조인간'과 같은 문물은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위험한 대상이 아닌, 낭만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효과를 획득한다.

의 외중에 매리의 심장부는 온전히 남아 윤 박사에게 전해진다. 인간이 되고자 하는 매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윤 박사의 다짐과 함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후속편의 가능성과 함께 행복한 결말로의 가능성 역시 열어 놓을 수 있게 된다.

4. 결론

<로봇 태권 V>에서 로봇이라는 소재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1970년대 한국에서 로봇은 단순한 공상과학 소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동화 기계에 둘러싸인 문명 생활을 선진 국가의 조건으로 피력하며 대량소비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경제 개발을 촉구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전후 한국사회는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문명 생활의 영역에 진입하기를 꿈꿨다. 로봇은 당대 자동화 기기의 첨단에 존재하며 전기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화 가전제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과학 기술의 산물처럼 여겨지는 것으로써 근대화 된 선진 국가의 환상을 보여주기엔 적절한 대상이었다. <로봇 태권 V>가 당대의 관객으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은 이러한 로봇의 위치를 포착하여, 당대 관객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 태권 V>에서 거대 로봇 태권 V가 가지는 강력함은 반드시 '선'과 결합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성품을 가진 김박사가 만들었으며, 태권 V와 하나나 다름없는 조종사 훈 역시 오랜 기간 태권 V의 조종사가 되기 위해 태권도를 수련해 오며 정의로운 성품을 갖고 닦은 인물이다. 이들이 선을 수호하기 위해 발휘하는 강력한 힘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산물인 동시에 규율에 의해 단련된 신체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사회의 통합을 위한 힘이다. 반대로 카프박사는 그것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태권 V에 대항하여 극명한 선악의 구도를 형성한다. 태권 V가 발휘하는 힘은 손쉽게 악을 물리치는 강력한 것으로, 선의 승리를 의심하게 하지 않는다. 권선징악의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강력한 힘은 관객에게 질서와 안정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을 암시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관객에게 태권 V는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악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하여 본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응원할 수 있게 하는, 근대화된 한국이 낳은 과학 문명의 총아, 로봇 영웅이 된다.

거대 로봇 태권 V가 자동화 기기의 첨단이 가져다 줄 희망찬 미래를 보여준다면, 인조인간 매리는 발달된 자동화 기기가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위협을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매리는 기계로 된 몸을 가졌으나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중에서 매리는 인간의 '모조품'인 기계에 불과할 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인간성을 가지지 못한 결합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다. 마지막까지 인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며 자신을 희생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매리의 모습은 기계에 대한 인간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태권 V와 매리라는 로봇은 관객에게 억압적이거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인 윤리와 낭만적 정조를 불러일으키는 매리의 서사를 통해 당대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관객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었다. <로봇 태권 V>의 관객들은 매리의 희생을 통해 슬픔과 희열, 그리고 태권 V의 강력한 힘이 부여하는 스펙터클과 엑스터시를 경험함으로써 재미를 느낀다. 결국 <로봇 태권 V>는 당대 한국 근대화의 속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긍정하게 하는 작품으로 위치한다. 과학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이상적인 미래상으로서 '로봇'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발전에 대해 무한히 긍정하는 것이다. 당대 발전주의 담론이 생산해낸 것은 꿈꾸던 것만큼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비어가는 농촌, 늘어가는 달동네, 노동문제와 전태일의 분신, 유신 이후 더욱 강력해진 억압에 대한 불만과 공포 등, 맹목적으로 발전주의를 추구하면서 외면하게 된 각종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대두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전주의 담론을 지지하던 정부는 늘어가는 공장, 고속도로의 확충, 상승하는 국민소득과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되는 수출 목표 등

을 각종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했다. <로봇 태권 V>는 이와 유사하게 발전된 과학에 대한 희망찬 전망을 관객이 만끽하게 함으로써, 1970년대 한국이 지지 하던 발전주의 담론 역시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봇 태권 V>가 전후 가속화된 한국의 근대화가 대중문화의 형성과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한국장편 만화영화사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로봇 태권 V>의 이러한 특성은 1970년대의 정부로부터 대중문화에 대한 극심한 검열이 가해졌던 사실과 국책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시대적인 상황을 엄두에 둘 때⁴⁰⁾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만화영화의 제작에 있어서의 국가의 영향력에 대해 차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로봇 태권 V>(1976)
 카렐 차페크, 김희숙 역, 『로봇』, 모비딕, 2015.
 『경향신문』, 『동아일보』

2. 단행본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1~3, 인물과사상사, 2002.

40) 이러한 사례로 강준만은 1970년대 중반 한국 TV 드라마에 가해졌던 퇴폐 드라마 단속과 KBS의 국책 홍보성 드라마 <팔도강산>(1975)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흥행 성공을 들고 있다.(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70년대편』 2, 인물과사상사, 2002, 292-297면 참조) 한국만화영화에서도 1970년대 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김정기 감독의 반공만화영화 <풀이장군 제3땅굴편>(1978)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_____,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인물과사상사, 2004.
 고장원, 『SF의 법칙』, 살림, 2008.
 김연순, 『기계인간에서 사이버휴먼으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김행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2012.
 손상익, 『한국만화통사(하)』, 프레스빌, 1996.
 임종기, 『SF 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 책세상, 2004.
 차은정, 『판타지 아동문학과 사회』, 생각의 나무, 20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허인욱, 『한국애니메이션 영화사』, (주)신한미디어, 2002.
 페니웨이, 『한국슈퍼로봇열전』, 한스미디어, 2012.
 마이클 에이더스, 김동광 역,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과학, 기술, 그리고 서양 우위의 이데올로기』, 산처림, 2002.
 미셸 푸코, 오성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2.
 폴 웰스, 한창완·김세훈 역, 『애니마톨로지@애니메이션 이론의 이해와 적용』, 한울 아카데미, 2001.

3. 논문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32권, 2007.
 김종태, 「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한국사회학』 제47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2013.
 박남기, 「1970년대 후반 태권도 소재 한국애니메이션의 신체재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 역사』 제67권, 한국사회사학회, 2005.
 배재윤, 「기획된 문화, 만들어진 스포츠」, 『한국사회학회 2013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3.
 성문기,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 V>에 관한 작품분석 연구-애니메이션의 영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지혜, 「한국 형성기 장편 만화영화의 서사와 인물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성희, 「1970년대 한국 SF 애니메이션 연구-한국사회의 근대적 욕망에 대한 소망충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종수, 「대량소비시대의 전망: 현대 삼신기(三神器)에의 욕망」, 『세대』 제5권 통권 48호, 세대사, 1967.

이지은,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V>의 여성관 연구: 영희와 메리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제15호, 영상예술학회, 2009.

_____, 「한국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타일 변천사 연구-195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해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임학순,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 인식 연구-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제21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2.

정일준,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 1953-1968」,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조미라, 「SF애니메이션에서의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의 관계」, 『영상예술연구』 제14호, 영상예술학회, 2009.

주창윤, 「1975년 전후 한국 당대문화의 지형과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제51권 4호, 한국언론학회, 2007.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한경희·신현규, 「대한태수도협회 1962년 제정 최초 태권도 경기규칙을 찾아서」, 『스포츠인류학연구』 제4권 1호, 한국스포츠인류학회, 2009.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허은, 「'전후'(1954~1965) 한국사회의 현대성 인식과 생활양식의 재구성」, 『한국사학보』 제54호, 고려사학회, 2014.

Abstract

The Meaning of the *Robot Taekwon Vs* 'Robot' in Korea's Modernization Period

-Focusing on the Giant Robot Taekwon V and Android Mary-

Yun Jihye

In *Robot Taekwon V*, giant robot is hero that human board at the first time on Korea feature animation history. Robot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through this work. Especially, when focus on relationship with discourse that mainly discussed in Korea 1970', robot is not a simple machine that has more meaning in *Robot Taekwon V*. It had strongly supported the development discourse in South Korea after the Korea war instilled a sense of mission that South Korea must be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pursuing fast economic growth through exports and recognized as a model for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So It accepted the civilization surrounded by automated machines in the conditions of developed countries. In this sense , the meaning of the robots are found as a symbol of a better life than household appliances. *Robot taekwon V* imagines the future of Korea to defend the world from the rank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figure of giant robot Taekwon V and android Mary, satisfies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s who want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In particular, the romantic narrative of android Mary's longing for humanity and Giant Robot Taekwon V's didactic morality was able to accept naturally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discourses. In this sense, this work is the material that means you have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ism discourses have penetrated in any way for viewers of popular culture.

Key words : Developed country discourse, Developmentalism, Korea's Modernization, Robot, *Robot Taekwon V*

접수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기간: 2015년 11월 8일~11월 21일

게재결정: 2015년 12월 17일